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툏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1. 선거자금 관련 정치인의 공적 문제제기, 지역언론이 검증해야

MC/ 오늘 준비해 오신 첫 소식은요?

민언련/ 네, 지난 1월 28일, 국민의힘 이연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
다. 이 기자회견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봤습니다.

MC/ 네, 그날은 마침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경선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서울에서 기자회견
을 예고한 이연주 예비후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민/ 네, 말씀처럼 갑작스런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연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유력후
보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이 돌기도 했는데요.
- 하지만 이날 이연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조직
이라는 것은 곧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불법 자금을 쓰는 게 불가피한 상
황이라고 토로했고, 이러한 선거 준비 과정이 향후 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문제제기했습니다.
-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선거자금에 대한 문제제기였기에, 저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
이 생기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생각보다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지역방송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

MC/ 지역신문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들이 있었나요?

민/ 네, 기자회견 다음날 부산일보는 1건, 국제신문은 2건의 기사가 있었습니

다.

- 부산일보는 <뒷말만 남긴 이연주 서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3면에 실었는데요.
- 해당 기사는 이연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려운 회견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 그러면서도 이날 이 예비후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조건부 사퇴를 거론한 만큼,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가덕신공항을 꼽았습니다.
- 선거자금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한탄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MC/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제신문은 부산일보와는 좀 다른 논조를 보였다고요?

민/ 네, 신문에서는 그날의 1면과 3면 그리고 사설이 해당 신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국제신문은 29일 1면에 <“불법 자금 없인 선거 못 할 지경” 이연주 작심 회견>을 실었고, 이어 3면엔 <민간한 ‘돈 선거’ 꺼내...야당 덮친 이연주 변수>를 실어,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선거자금과 관련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MC/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이연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지점이 눈에 띄네요. 추가보도는 더 없었나요?

민/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다음날이죠. 29일에 박재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민은 한심하다”라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해당 발언과 이연주 예비후보의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실언’, ‘공방’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이면서 다시 한 번 이연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 이 예비후보의 문제제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진 못했던 만큼,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제기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고, 유권자를 비하한 발언과 선거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일한 잣대로 ‘실언’이라 묶여 아쉬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순 없었을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추가 취재를 할 순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MC/ 방송은 어땠나요?

민/ 네, KBS부산에서 1건이 있었는데요. 신문과 동일하게 ‘돈 선거 의혹’, ‘한심 발언’ 공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선거 자금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건 방송도 똑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MC/ 이번 이연주 예비후보 기자회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 네, 그 어떤 보도보다도 아쉬움이 많이 드는 보도였는데요. 가깝게는 전봉민 의원 사건도 있었고, 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엘시티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더욱 야권의 예비후보가 금권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취재력을 보여줄 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후보자와 공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은 뭐가요?

2. 엘시티 수사 결과 보도 않은 지역언론

민/ 엘시티 전 시행사 대표 이영복 회장이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지역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MC/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건설 과정에서 횡령과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을 받고 현재 복역중 인데요. 또 기소되었다는 거네요.

민/ 네, 검찰은 1월 29일 이영복 전 엘시티 시행사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전 회장이 2015년과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 때문에 보증이 금지되자 분양보증을 받으려고 자회사나 관계사를 동원해 주식 가장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공모한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말이 좀 생소한데요. 가장매매는 다른 사람과 짜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을 통해 보증공사를 속이고 1조9천억원 상당의 부정 분양보증을 받았습니다.

분양보증을 해준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MC/ 당시 주택보증보공사가 제대로 알아보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엘시티 건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정말 엘시티 사건은 횡령과 정관계 로비에 이어 부정 보증까지 비리가 끝이 없는데요.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요?

민/ 네, 먼저 지역방송은 검찰이 기소한 1월 29일 저녁뉴스에서 모두 단신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듯 기소사실만 간단히 전달했는데요, 추가적인 해설은 없었습니다.

- 국제신문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검찰 기소 중 엘시티 건은 지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진건데요. 고발 4년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겁니다.

- 이번 기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반응은 오마이뉴스가 전했는데요.

특장 수사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또 보증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혐의 된것과 관련해 특혜를 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특혜 받은 사람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가정이 의미가 없지만,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비리 규명을 보도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도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MC/ 최근 엘시티 관련 추가 보도는 연합뉴스 TV에서 했다고요.

민/ 네, 연합뉴스 TV는 이영복 측근의 엘시티 경영 개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1월 18일 <부산 랜드마크 엘시티, 상가 분양방식 ‘마찰’>, ▲1/22 <[단독] 이영복 측근, 출소 직후 또 엘시티 경영개입 의혹>)

- 엘시티가 최근 상가 분양방식을 일괄분양에서 개별 분양으로 바꾼 과정에 이영복 회장과 그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복합쇼핑센터 등이 들어선다는 기대를 갖고 분양받은)) 또 입주민 60% 정도가 개별 분양을 반대하는 등 갈 등 상황을 전했습니다.

- 하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개별분양에 나선 엘시티 더몰 분양이 최고 경쟁률 15:1을 기록했다며, 분양 열기를 소개하는 내용만 소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부산일보 12/27 <주택 규제 피해 상가로? 엘시티 ‘더몰’ 최고 경쟁률 15 대 1> ▲국제신문 12/16 <엘시티 상가 21일부터 청약...사전투자 의향서 수백건 몰려>, 12/27 <‘분양가 50억’ 엘시티 상가 최고경쟁률 15대 1>)

MC/ 엘시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했듯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정경, 금융 심지어 언론까지 연루된 대형 특혜 비리 사건인데, 언론은 상가 분양 열기나 이제 초고층 빌딩의 전망을 전할 때만 관심을 보이고, 남아있는 진실규명에 대해선 소홀한 것 같아 아쉽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3. 30% 못넘는 신문 여성 필진, 지역신문은?

민/ 신문의 필진은 해당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데요. 부산일보를 예로 들면, 부산일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만큼 ‘오션뷰’ 코너에 해양수산분야 학계, 업계 전문가를 필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근 미디어오늘은 전국 9대 일간지의 필진 성비를 조사해, 여성필진의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필진 성비를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 부산일보는 지난해 12월 29일 2면에 ‘2021년을 맞아 큰 폭의 필진 교체’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젊은 필진, 여성이 많이 참여해 세대와 성비 간 균형감이 좋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강조한데 비해, 전체 필진 36명 중 9명, 25%가 여성필진이었습니다.
- 국제신문도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필진을 정비했는데요. ‘청년의 소리’라는 칼럼을 만들어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돋보였으나, 성비균형 측면에서는 전체 40명의 필진 중 8명만이 여성필진이어서 2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신문의 필진들이 칼럼을 쓰는 오피니언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교류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역신문의 필진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지길 바랍니다.

MC/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감사합니다.